

한국노인의 회상(回想)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이 은 정**

이 연구는 현실세계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과거로의 도피를 통해서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 자하는 노인의 '힘없는 중얼거림' 정도로 평가절하시키는, 이른바 노인 회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는 다른 견해를 갖는다.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 회상은 그 나름대로의 삶의 존재방식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노인의 회상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회상은 복합적인 측면을 내포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접근에 의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 중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한국 노인의 회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한국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노인을 가능한 포함하기 위하여 재가 노인, 병원에 입원한 노인, 양로 노인 등 총 10명이었으며, 1996년 1월부터 1997년 2월 까지 약 1년여 동안의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의 본질에 더욱 접근하기 위하여 회상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경험, 시나 영화 등의 예술작품, 그리고 시, 관용어구, 한국소설 등 문화작품 등에서 노인이 회상하는 장면을 수집함으로써 회상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한국 소설 부분에서 수집된 노인 회상에 관한 자료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의 진가(truth value)를 높이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노인의 회상의 본질적 주제는 [삶의 회한(悔恨)] [한(恨)의 삭임] [힘의 확인(確認)] 그리고 [삶의 보람]으로 발견되었다. 각각의 주제들은 상호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드러나며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

노인은 늙고 몸이 약해져 감에 따라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인지한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인지는 노인으로 하여금 회상하도록 자극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시간의 유한성, 곧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노인은 굽이굽이 살아온 삶의 자락을 펼친다. 노인이 펼치는 삶의 한 자락은 삶의 회한이다. 삶의 회한은 고생과 희생으로 일관된 삶에 대한 허망함과 서러움, 자식이나 배우자,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 즉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물질이나 출세에 민감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바보처럼 살았던 인생에 대한 억울함과 후회, 그리고 배움에 대한 아쉬움 등 살아오는 동안 채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원(怨)과 탄(歎)을 말한다. 이 주제는 노인 회상의 출발점이자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삶의 회한은 다음에 기술될 한의 삭임과 관련이 깊은 바, 노인은 이루지 못한 것이나 인생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회한을 하다가도 그것을 삭임으로써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역설적인 반응을 보인다.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 서남대학교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삶의 회한은 한의 삭임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노인들은 물질, 인연의 굴레, 혈육 등의 집착을 포기하고, 떨쳐버리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삭인다. 이는 채우지 못한 인생의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보다 관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자기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의 삭임은 삶의 회한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즉,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을 수동적이고 운명적으로 포기를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떨쳐버리고 그 한을 삭이는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삶의 회한과 한의 삭임의 과정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노인들은 회상을 통해서 지난 날의 힘을 확인한다. 즉, 젊을 때의 기운과 건강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기력의 확인, 자신감, 배짱, 지적 능력 등 패기와 충기의 확인,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거느리고 물질을 마음 먹은 대로 모으거나, 일 및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등 사회적인 힘을 의미하는 젊은 날의 기세를 확인한다. 이러한 힘의 확인이 의미하는 바는 기력의 확인, 패기와 충기의 확인, 그리고 기세의 확인, 이 세 가지 양상의 힘이 의미 함축적이고 포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힘의 확인은 기력, 즉 몸의 힘을 기반으로 하며, 기력, 패기 및 충기, 기세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힘의 확인은 죽음이라는 현상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드러난다. 즉, 노인은 그동안 유지하여 왔던 힘이 사위어감을 느끼면서 죽음을 막연하게나마 인지하게 되며, 혈기왕성했던 시절과 현재 주변에 남아 있는 힘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한다. 본 연구의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힘의 확인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인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 경험과 관련지어 집중적으로 회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인의 회상의 본질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해석학적 의미를 반영한다.

힘의 확인과 함께 삶의 보람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 노인은 살아오는 동안 맺어진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확인한다. 조상, 노인, 자식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 속에서 노인은 조상과 자식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지를 점검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다. 또한 이웃관계를 점검하고 이웃에게 도리를 다했다는 데서 삶의 보람을 갖는다. 삶의 보람이 갖는 해석학적 의미는 죽음자각과 필연적으로 관계하여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은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의 유한성을 절감하고 존재의 위협을 느끼며, 이러한 존재의 위협은 그동안 맺어왔던 종적, 횡적 인간관계 속에서 노인으로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4가지 본질적 주제들을 통해서 볼 때 노인의 회상은 단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제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한 곳에 정체된 개념으로서가 아닌 역동적인 과정으로 드러난다. 이는 회상은 대상자의 회상하는 양상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측면 등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복합적이고 과정적 구조로서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 실무에서 회상을 적용할 때, 모든 노인 대상자는 회상의 본질 상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노인의 독특성과 상황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는 노인도 통합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그들의 인생 전반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한다.

본 연구결과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문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노인 회상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회상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주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회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기존의 질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수의 회상의 내용분석을 한 연구 결과들보다 총체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데 대한 서술적, 설명적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노인에게서 독특하게 발견된 회상의 본질적 주제인 [삶의 회한] [한국의 삶] [힘의 확인] 그리고 [삶의 보람]은 한국 노인의 회상의 본질적 구조 모형을 구축하는 근거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간호실무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상자인 노인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회상 요법을 노인에게 적용시 노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개별노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간호실무의 지침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간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인본주의와 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인 및 노인 회상에 따른 인간 반응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다. ▮